

광주지법 '女風 強風'

판사 80명 중 20명 ... 역대 최다

법조계의 '여풍(女風)'이 거세지면서 광주지법의 여성 판사의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25%에 도달했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3일자 정기인사에서 소속 법관 80명 가운데 20명이 여성 판사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연수원 33기 이하 법관의 경우 10명 중 6명 가량이 여성이 차지할 만큼 '여풍' 현상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행정부 배석판사는 2명 모두 여성으로, 나머지 합의재판부도 대부분 1명 또는 2명의 여성법관이 배석판사로 배치됐다.

특히 지난해 사무분담에서 없었던 여성 형사단독 재판장도 2명이나 배치됐다. 형사 3단독을 맡게 된 송혜영(연수원 24기) 판사와 9단독 이은혜(연수원 33기) 판사다.

이와 함께 법원은 경제난에 급

증하는 소액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액사건 재판부를 1개 증설했으며, 영장전담 판사 2명을 부장판사로 배치해 영장심사를 강화했다. 그동안 업무가 과중했던 형사심 재판부도 민사 3개, 형사 3개로 1부씩 늘렸고, 국참여재판부를 2개 부에서 3개 부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형사2부에는 구길선 부장판사(15기)가, 국민참여 재판부인 형사1부에는 이우봉 부장판사(22기), 형사3부에는 이준상 부장판사(23기), 형사6부에는 배현태 부장판사(23기) 등이 배치됐다.

박정수 부장판사(23기)와 이재희 부장판사(23기)는 각각 형사5단독, 형사8단독을 맡게 됐다. 신인일 공보관에는 김종복 판사(31기)가 임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양심불량 '물 보상금' 수사 확대

영산강환경청 7개 시·군 903명 적발

검·경, 공무원 등 관련 본격 조사 착수

최근 보성군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 검·경이 본격 조사를 착수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전남지역 7개 시·군에서 주민 903명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을 어겨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낸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사업비 수령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부동산을 등기하면서 허위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2006~2007년 부동산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보성군(516명), 강진군(134명), 순천시(107명), 화순군(89명), 장흥군(24명), 광양시(19명), 영암군(14명) 등에서 주민지원 사업비를 수령했다.

경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사의뢰에 따라 관련자료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장흥과 영암경찰은 지난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광주지검도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회의를 통해 수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보성에

서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라 물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규모는 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이번에 수사 의뢰된 903명 가운데 227명은 수령금 가운데 1억8천 만원을 이미 자진 반납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보성군 175명을 비롯, 강진군 30명, 화순군 20명, 광양시 2명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지급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다만 사업비를 자진 반납할 경우엔 위법사실이 드러나도 경찰에 선처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경찰은 지난달 물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성군 공무원 1명과 브로커 1명을 부동산특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3분 해질 18시 19분 달돋이 04시 08분 달질 13시 44분

오전에 눈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며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광주	비/눈온후	1/4
목포	비/눈온후	3/4
여수	비/눈온후	1/5
완도	비온뒤	3/4
구례	비/눈온후	1/4
해남	비온뒤	3/4
장흥	비/눈온후	3/4
고흥	비/눈온후	1/6
순천	비/눈온후	2/6
영광	눈온뒤	0/3
진도	비온뒤	4/4
전주	눈온뒤	-1/5
남원	눈온뒤	-1/3
옥산	비온뒤	3/4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목포 11:33	04:0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여수 06:55	13:10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씨						
최저/최고	-2/7	2/8	2/10	2/11	0/12	0/10

광주·전남 청소년 범죄 피해율 타지역보다 2~3배 높다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 교육청과 사법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수원 24기)이 내놓은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각종 범죄 유형에 따른 광주·전남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2~3배 가량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의 경우 광주가 1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는 또 절도, 사기, 소매치기 등 재산범죄가 19.5%로, 전국 평균(8.1%)의 두 배에 달한 가운데 전남(9.7%)도 평

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광주·전남은 특히 성범죄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성범죄 피해는 15.3%로, 전남(15.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같은 수준은 전국 평균(4.8%)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정폭력(학대 등)과 또래 폭력(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피해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등 전국 13~18세 남·여 청소년 2천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우리도 일자리 찾았소" 광주시 동구는 19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동구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 643명에게 환경 지킴이·아동 안전지킴이 등 일자리를 제공한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소비자 70% 주 1회 이상 중국 농산물 구입

안전성은 불신

광주지역 소비자들 10명 7명이 중국 농산물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도 매주 1회 이상 중국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책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리전인포 152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 377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매주 1회 이상 중국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4%가 '가격이 싸다'고 답해 우리 농산물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자 42.7%가 중국산 농산

물인지를 알고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매하는 중국 농산물은 고사리 등 특용작물이 5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마늘 24.7%·버섯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 72.9%는 중국 농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답했으며, 호감도에 대해서도 43.2%가 '별로'라고 답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비... 눈... 강풍... 황사...

20일 광주·전남지역은 단비가 그친 뒤 황사를 포함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광주·전남은 오전까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온 뒤 점차 개겠다"고 19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아침에 목포와 함평

등 서해안지방부터 황사가 나타나 낮은 황사를 포함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오전엔 여수시, 완도군, 목포시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강료 동결"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한국학원총연합회

서구 대규모 승진인사

전국 학원들의 모임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19일 경기침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올해 수강료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지역 학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학원 수강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액수강료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인하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원비 감면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서구가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신설된 '희망복지지원단'은 노인·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인사정책 해소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5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같은 승진 인사 규모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최대이다.

직급별 승진자 수는 ▲5급 5명 ▲6급 5명 ▲7급 13명 ▲8급 12명 ▲기능직 18명 등이다. 특히 이번 인사가 하위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종원기자 golee@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5420 / 010-722-0100

10215주곡·91414